



삼성전자 10% 상승

반도체 훈풍 지속되며 코스피 신고가 경신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에 피지컬 AI 관련주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788.38pt (+3.68%)	1,050.03pt (-2.30%)	1,399.91pt (+4.2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07.70 원 (+2.9 원)	4.1220% (+5.4bp)	7,618.25pt (+0.3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773 억	-4,865 억	+6,309 억
외국인	-29,204 억	+7,943 억	-5,407 억
기관	+25,350 억	-2,913 억	-2,84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증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대비 상승폭이 작았던 삼성전자가 하루만에 10% 상승하면서 코스피 신고가를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방한을 앞두고 피지컬 AI 관련주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3.68% 올랐고, KOSDAQ은 2.30%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69.4조원, KOSDAQ은 약 12.1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9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금융과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2.5조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5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글로벌 IB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소식에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가 탑재된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LG그룹주, 두산그룹주, 네이버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전력기기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반면, 바이오, 건설, 2차전지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LG전자(+29.86%), NAVER(+16.03%), 삼성전자(+10.09%)가 올랐고, 보로노이(-12.89%), 삼성전기(-5.74%), HD한국조선해양(-4.37%)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